



2021년 5월 2일(제1033호) 부활 제5주일(상명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살아갈 양분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서로 경쟁하고, 낮고 올라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조금 덜 가지고 덜 누려도 행복함을 알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매번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였고, 우리가 하느님 계명에 따라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계명에 따라 살아갈 때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시며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요한 사도는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성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

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기쁨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결실이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더 가지고, 남들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아무런 양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기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잃고 하느님 사랑에서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참례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세상의 방법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면 미사의 은총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도 말라버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김정식(필립보) 신부
홍지(12시전) 상명 주일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판호송

사도 9,26-31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1요한 3,18-24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5,1-8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일곱 번째 시한

다른 사람 하나(김대건의 매부)는 자기 아내의 부모를 신고하였으므로, 국법에 따라 교살당하였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한 포졸 대장도 짐작하건대 남에게 불의한 짓을 저지른 탓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된 후 사형을 받았다고 말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에게, 어찌서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1839년)에는 배반자들의 음모 때문에 감히 보내지 못하였고, 이어 밀사들을 보냈으나 도중에 사망하였고, 두 번째 보낸 자는 변문까지 가기는 했으나 중국인 안내자를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되돌아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란치스코가 변문에 와서 중국인 안내자를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북경까지 들어갈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허락지 않아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쯤 듣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온 편지들을 받아 가지고 그와 작별한 후, 변문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는 신부님들이 1년 후에야 담당 선교지인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2월 쯤에 신부님을 인도할 준비를 할 마음으로, 제가 곧 조선에 들어가는 여행을 계속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프란치스코에게 조선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는 국경을 통과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나무꾼 행세로만 입국할 수 있을 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밤 1시쯤 일어나서 전에 준비해 두었던 조선옷으로 갈아입고 중국인 안내자들과 작별한 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 가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몰라 숲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짐승이 가까이 오기에 생각하니, 나무할 칼을 잊어버리고 변문에 놓고 왔기에 변문에 되돌아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30리 되는 길을 걸어가니, 해가 넘어갈 무렵에 의주 읍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통과할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예로부터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성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다 달렸습니다.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너는

님께서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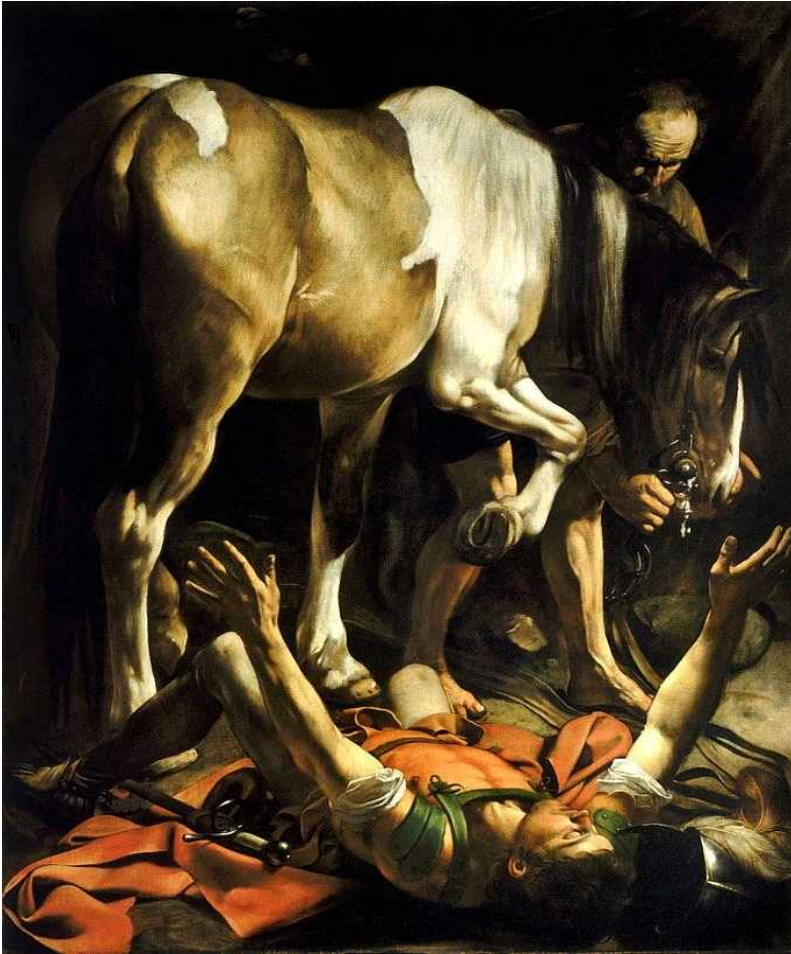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달려 주시지 않았던들.



상화이야기

사울의 회심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사도 9,1-18)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말에서 떨어져 양팔을 하늘로 벌리고 있는 사울에게 빛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어둡다. 오직 사울만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시종을 드는 말을 잡고 있는 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카리냏시오, 1600년 작
 씨이프리스 나무 캔버스 위 유화, 237x189cm / 발비 블랙션, 이탈리아 로마

하느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커다란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분의 빛으로 채워, 우리 눈을 그분에 대한 열망만으로 멀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은총이 있을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5주일: 해병중앙 신기훈 신부

◆ 군중교구 연무대 상당 사무장 모집

- 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5월 12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 ‘신부(神父)의 책장’ 인내

- 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방영 채널 : 군중교구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